

“헌혈 문화 확산 등 사랑의 생명 나눔 앞장”

●취임 1주년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지역상품권 제공’ 등 방안 모색...경제 활성화 효과 인프라 강화 혈액원 신축 추진...해외봉사 등 계획

“혈액 기부 문화 확산과 헌혈자 증진을 이끌어 내 생명 나눔이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동수(58·사진) 제19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은 16일 취임 1년여간을 되돌아보며 향후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원장은 “인구 감소로 헌혈자도 줄어들고 있어 중·장년층 이상 헌혈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헌혈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 방법도 강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추진 목표 중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헌혈 장려와 지역 경제 활성화다.

김 원장은 “경북 안동시와 충북 괴산군의 경우 각각 지난해 1월과 지난 2월에 조례를 만들어 헌혈한 시민들에게 1회당 지역상품권 1만원

을 지급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헌혈자에게 기념품·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급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성 등 타 지역도 관광자 입장권을 구매하면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이를 헌혈에 도입하면 헌혈자들도 늘고 시장 경제도 활성화하는 상생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헌혈자집을 리모델링해 방문객 편의를 증진, 헌혈자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헌혈의집 목포센터를 기존 목포역 일원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 상동으로 이전해 개소했으며, 올해 충장로센터, 순천센터, 전대동봉센터 순으로 헌혈의집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건물도 신축하는 등 혈액 허브 역할을 강화할 방침으로, 현재 광주 남구에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 원장은 “이번 달 안으로 부지 선정이 결정되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8천24㎡(2천500

0평) 규모의 새로운 혈액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행한 헌혈 기부권, 제빵 이벤트 등을 지속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연계를 통해 생애 첫 헌혈자를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등 헌혈 문화 확산에도 앞장선다.

다회 헌혈자들을 모집해 저개발국가 봉사활동 등 기부·봉사활동 확장도 구상 중이다.

김 원장은 “현재 지자체, 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헌혈을 진행하고 있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변 상가 및 병원들과 연계, 할인·건강검진권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의 헌혈을 독려하고 자발적 헌혈자를 늘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헌혈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충해 혈액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헌혈 참여자를 늘려나가는 것 목표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다”며 “따뜻한 마음 슬며시 건네는 당신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시구처럼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웃었다. /주성학 기자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특별교육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수질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특별교육은 지난 1월27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법적의무 이행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해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를 관

할하고 있는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 중대재해수사과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산업 재해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안전·보건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일용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중대재해의 주요 내용 및 사고사례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적의무 이행사항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를 관 /기수회 기자



전남도·공인중개사協, 전세사기 예방·서비스개선 결의

전남도는 1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대회에는 명창환 행정부지사, 김권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보급자리 마련, 안전 계약환경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중개서비스 질 개선 등에 동참키로 했다.

특히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불신을 종식시키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도 공정한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위법·불법 없는 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계약하도록 목표·여수·순천·나주·광양·무안 등 6개 시·군 민원실에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센트럴윤길중안과-한국알콘 ‘디지털 안과 수술’ 협약

센트럴윤길중안과가 안과전문 기업인 한국알콘과 디지털 안과 수술 환경 구축 및 의료진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센트럴윤길중안과에 따르면 최근 윤길중 대표원장과 알콘 북아시아 서지컬사업부 총괄 최준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알콘 비전 스위트(Alcon Vision Suite)’를 이용한 디지털 안과 수술 환경을 구축하고 광주·전남 지역 안과 수술 전문 의료진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알콘 비전 스위트는 임상 진단기기를 비롯한 디지털 수술장비와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통합한 안과 의료진을 지원하는 에코시스템이다.

윤길중 센트럴윤길중안과 대표원장은 “이번



알콘 비전 스위트 도입이 환자에게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료와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안과 의료진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수회 기자

전남대 대학원생 4명 ‘대통령 과학 장학생’ 선정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4명이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16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과학기술통신부가 석·박사 이공계 연구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한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생’ 사업에 ▲최지윤 석박사통합과정생(의과학과) ▲박정은 석사과정생(기계공학과) ▲김예빈 박사과정생(생명과학기술학부) ▲강세이 석사과정생(인공지능융합학과) 등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지윤 학생은 학부 때부터 꾸준한 연구를 통해 SCI급 논문 2편을 발표했으며,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RNA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박정은 학생은 공대 학사를 수석 졸업했으며



제 ‘저비용 고효능화 미세유체시스템 개발 및 응용’ 과제의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예빈 학생은 앞으로 ‘플라스틱 단량체 감지용 바이오센서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해 플라스틱 분해 효율 향상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세이 학생은 학부 때부터 연구해 온 내용을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가상현실 물체 조작 방법론과 감정 공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다미 기자

전남농기원-도립대 ‘농업인 드론 안전교육’ 협약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범열)는 지난 15일 농업인 드론 안전교육체제 캠프 등 드론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법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업인 드론 안전캠프 종합계획 수립 및 체험 캠프 운영 홍보와 참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남도립대는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드론 교육 과정에 드론(무인멀티콥터)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드론 안전 체험 캠프를 운영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규와 등록, 체계적인 안전 관리 요령 교육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재정 기자

북부경찰 ‘찾아가는 보행자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사)대한노인회 북구지회를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자 교통안전’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부경찰서는 노인회 북구지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북구지역 노인회관과 무료급식소는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행사 현장을 찾아 보행자 교통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이 불안해 하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범죄 예방 치안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장명본 제47대 광주 서부경찰서장 취임



“경찰 신뢰도는 경찰관의 청렴과 도덕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단 하나의 비리와 비위조차 배격해 서부경찰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잇단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나 공석이 된 광주 서부경찰서장 자리에 장명본(55·사진) 광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이 취임했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명본 제47대 서부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광주 출신인 장 서장은 경찰대학 8기로 1992년 경위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 북부서 생활안전과장, 광주청 홍보담당관, 전북청 정읍경찰서장, 광주청 치안정보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장명본 서부경찰서장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삼아 서부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 한다”며 “시민들이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자기 관리로 응답하자”고 당부했다. /주성학 기자



북구, 소상공인 지원 기관 사업공유설명회

광주 북구는 16일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구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5개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선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자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기관들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정책자금 지원과 중앙·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해 설명했다.

설명회에 앞서 지난달 참여 기관들과 유기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한 북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추가 발굴·실시될 경우 이를 적극 알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소상공인이 다양한 지원 시책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게 하는 회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6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결혼

▲김경윤(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이태복씨 장남 태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군, 노수근·이명자씨 장녀 지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양 =28일(일) 낮 12시30분 센트럴광주호텔&레지던스과레스기든홀(010-4541-2580).

▲박상훈·김영숙씨 장남 준성군, 이태일·김경숙씨 장녀 은지양=27일(토) 오전 11시 광주 까사디루체 1층 루체홀(062-710-4000).

▲김태수(호남도민일보 광주전남본부장)·이점숙씨 장남 정훈군, 심광철·박정숙씨 장녀 명희양=20일(토) 오전 10시30분 광주 하우스오브드레메르웨딩홀 1층 르세일홀(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51-062-228-0000, 010-2682-7080).

▲조영권전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상무·조은숙씨 장남 장근군, 김운수·이미자씨 장녀 주연양=20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 윤림제(광주시 동구 동산길 29-0607-1362-6226, 010-2443-1479).

▲심철환·이연주씨 장남 기성군, 김종구(무등출산대표)·조성순씨 장녀 태인양=20일(토) 낮 12시, 추성창의기념관(담양군 담양읍 죽량문화로 380-061-380-2880, 010-6275-5312).